

갈대상자 소식지

한동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학 전문가
내가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예배는 계속된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글로벌 전공 봉사를 통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
스펙이 아닌 희망찬 스토리에서 나오는 경쟁력

한동소식

청지기 투자학회, 국제투자분석대회 한국대표로 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배우는 '창조과학'

함께 읽는 갈대상자

끝까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첫 열매

부록 갈대상자 다시읽기



갈대상자 소식지 2013년 제44호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갈대상자 소식지 전자우편: sarang@handong.edu

글_ 성연태, 김민서, 이해정, 임하영, 한경석

사진_ 한동아카이브

CONTENTS

한동인

- 06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학 전문가
- 09 내가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 12 한동인이 만든 2013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레 밀리터리블'
- 15 학생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이 제게 있어 행복입니다
- 18 화이트데이? 커플이 아니어도 행복해!
- 20 고시... 고난과 시련? 고민만 하지 말고 시도해!
- 22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예배는 계속된다!

Why not change the world?

- 26 글로벌 전공 봉사(GEM)를 통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
- 30 순전한 어린양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 32 설문조사에서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착한 애플리케이션?
- 34 스펙이 아닌 희망찬 스토리에서 나오는 경쟁력
- 38 유쾌한 컨설턴트 심규진 동문과의 만남
- 41 우물 파는 총동문회장이 한동에 보낸 편지

한동소식

- 46 청지기 투자학회, 국제투자분석대회 한국대표로 선발
- 48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배우는 '창조과학'
- 50 지난 10년 동안 사랑받고, 그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함께 엮는 갈대상자

- 54 "끝까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 56 아주 특별한 첫 열매
- 58 65일의 사랑
- 61 한동대에 배달된 오색호두과자,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동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학 전문가

GEA학부에 새로 부임하신 전 LG 전자 사장, 강신익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동인 여러분. 이번에 새내기로 한동대에 오게 된 13학년 강신익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행복하네요!

수십 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나올 땐 막막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LG그룹에서 나오기로 결정되자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하나씩께서 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사용할 곳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신호였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오히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회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LG그룹에서 자진해서 퇴임식을 하고 나온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웃음)

한동을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동을 알고 지내 온 저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90년대 후반,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동대에 많은 지원을 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LG그룹에서 마케팅 인사 조직을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도 한동대에 리쿠르팅을 하기 위해 직접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제게도 공손히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의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제 기억 속의 한동은 ‘하나님의 대학’ ‘무감독 시험’ 등의 키워드를 연상케 하는 곳이었습다. 그리고 그러한 한동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슬슬 한동은 제2의 도약이 필요하



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서로 함께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에 한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정도 만들고 싶기도 하네요.

학생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한동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화력과 열정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선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가르치게 될 GEA의 ‘융합’, ‘창의’ 같은 가치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충분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저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에요

GEA 학부에서 제가 담당할 분야는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문제해결능력역량을 기르기 위해 사회생활 실무에서 경험했던 저의 모든 노하우들을 대학 수업형식으로 새롭게 튜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삼고 있는 제 수업들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 관리와 문제해결방법에 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한동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전반전은 LG그룹에서의 성공을 위한 삶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에 비해 인생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 나가는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의미’는 ‘부’ 같은 것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봐요. ‘부’는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또 다른 인간에게도 영향력을 주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 인생 후반전 또한 한동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제 오피스로 찾아오세요!

평소 학생과 교수 사이엔 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정확히 구현돼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LG그룹 사장직에 있었다고 해서 혹시나 학생 여러분이 저를 어렵게 느끼시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회사라는 조직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 덕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직장을 잡아달라는 이야기만 아니라면 (웃음) 언제든 제게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제 경험을 쏙쏙 뽑아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선 '영성', '인성', '역량'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량'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EA학부생이 아닌 누구라도 언제든 제 오피스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상을 바꾸어나갈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경번역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온 스탠니



하나님 나라를 이룰 비전을 가지고 성경번역을 위해 아프리카 버건디에서 온 학우가 있습니다. 현재 한동대 소속 아릴락에서 응용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스탠니 학우를 소개합니다.

Q. 한동대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한국에는 2012년 2월에 아프리카에 있는 버건디에서 왔습니다. 저는 버건디에서 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제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제가 공부의 지경을 좀 더 넓히고 싶다고 하자 그 친구가 한동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때 한동대에 있는 지금의 제 전공을 보고 흥미를 느껴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아릴락'이란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아릴락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한동대학교의 소속 부서로 언어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아릴락의 주목적은 성경 번역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에션 'Holistic Mission'이 있는데 이것은 통합선교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든 영역을 통해 경험케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 삶에서 열매로 맺어져 창조적 정체의 회복이 드러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그렇지만 특히나 성경 번역은 정말 복잡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의 구조, 신학적 배경,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어찌 됐건 제 전공이네요. (웃음)



Q.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본래 사회 과학을 좋아합니다. 사회를 다루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루기도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번역은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이자 최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번역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번역은 하나님의 사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조국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척 가슴 벅찬 일이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단기적으로 먼저 학위를 따고 이후 버건디로 돌아가 성경 번역을 계속하며 선교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번역, 한 손에는 소셜액션을 가지고 버건디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소셜액션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면에서 아프리카



보다 훨씬 성장해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던 점은 한국은 불과 몇 십 년 전, 경제적으로 버건디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배워 제 나라에 돌아가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자원을 잘 사용하고 생각하는 법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아프리카도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Q. 본인에게 한동이란?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버건디에서 본 한국인들은 항상 '빨리 빨리' 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미지였습니다. 항상 바쁜 그들을 보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에 와서 저는 한동의 생활을 발견하였습

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여유를 갖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동인들이 먼저 다가와서 "필요한 건 없느냐", "공부할 때 힘든 점은 없느냐",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느냐", "따뜻한 옷은 있느냐" 등등을 물어왔습니다. 특히 옷에 관해선 버건디와 한국은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처음 경험하는 날씨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인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동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한동인이 만든 2013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레 밀리터리블’

‘레 밀리터리블’의 감독 정다훈 동문을 만나다

“제설 제설 년 2년 남았어”라는 가사로 전세계 군인들과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든 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레 밀리터리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상의 감독이 공군 미디어영상팀에서 소위로 복무 중인 정다훈(산업디자인 06) 동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엔 수준 높은 영상미와 내용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레 밀리터리블’. 이 영상을 제작한 우리 학교 정다훈 동문을 만나보았습니다.



레 밀리터리블 감독 정다훈 동문
(왼쪽 아래)

Q 영상을 본 주위 한동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 이런 반응이 많죠(웃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연출하신 장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처음에 등장하는 제설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죠. 처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도 ‘제설, 제설’이 한마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처음에 만 들었던 배경음악도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바로 그 음악이었어요. 가사도 가장 먼저 썼고 사람도 제일 많이 참여해서 기대를 가장 많이 했던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촬영 당일, 스태프와 배우들 50여 명과 엑스트라 30명이 참여했었죠. 제설을 하는 엑스트라들 30여 명이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Q 혹시 편집된 장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래 ‘I dreamed a dream’이 2절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14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절을 아예 잘라버리게 된 거죠.

또, 어떤 경우엔 가사가 좀 바뀐 게 있는데 영상을 이미 50명, 60명이 와서 다 찍고 갔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찍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입 모양이 비슷한 단어들로 가사를 바꾸어서 다시 녹음했었어요.

Q 한동대에서의 경험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전공 또는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음악, 연기, 영상,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그 무엇보다도 한동대에서 수많은 조모임과 팀 모임, 동아리 회장, 임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리더십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런 소통하는 방식을 이번

학생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이 제게 있어 행복입니다

한동대 생활관 김민정 간사님 이야기



“레 밀리터리블” 작업을 하면서 적용했었습니다. 한동대 출신이라는 것이나 나의 능력 때문에만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대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과 경험 덕분에 스태프들과 함께 지금의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감독으로서 좀 더 나은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계기였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한동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학교 모토가 ‘Why not change the world?’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군이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짧은 인생. 이왕 사는 거.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야 좀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이번 ‘레 밀리터리블’ 영상을 한국에서 많이 보셨고 외국에서는 10퍼센트 정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는 생각

해요. 물론 ‘싸이’ 씨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창의력을 제한시키는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군대에서조차도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이뤄 냈잖아요.

군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의 작은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좌절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울 때도 찾을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하고 끝까지 달려든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꿈을 반드시 차근차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다훈 동문은 앞으로 패러디가 아닌 전혀 다른 장르의 차기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은 많이 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런 영상 작업이 정말 재미있고 좋기 때문에 계속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추구한 정다훈 동문,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도심과는 거리가 먼, 포항 산골짜기에 있는 한동대. 학생들은 부모님 곁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목사님, 교수님이라는 또 다른 부모님에 의해 언제나 보살핌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선 또 다른 종류의 부모님께서 그들을 반겨주게 되는데요, 바로 기숙사 간사님들이십니다. 학생들의 삶과 밀접히 닿아있는 기숙사 간사. 그 중 비전관 Torrey College의 김민정 간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한동대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 방송 관련 일을 했었는데요, IMF 때 제가 속해있던 방송국사정이 어려워져서 잠시 내려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는 충분히 했다, 응답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한동대의 어떤 분

에게서 전화가 오고 ‘기숙사 간사 TO가 있는데 포항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방송 이외의 다른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동으로 가라는 마음을 굉장히 뚜렷하게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Q. 근무하시게 되면서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가장 큰 보람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며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졸업한 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5년씩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예요. 보람 있던 일 중 가장 생각나는 건, 어떤 비기독교인 학생과의 만남입니다. 그 학생은 한동에 와서 저와 오랜 기간 함께 교제하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친구가 후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

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보람이었어요.

또한, 굉장히 기회와 재주가 많지만, 자신의 상처에 매몰돼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와 일 년 동안 교제하면서 많이 건강해져 무사히 졸업하고, 치의전대학원에까지 입학했다는 연락을 받다 보면 ‘아 진짜 정말 보람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기 싫어도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의 삶의 여정에 제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제겐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Q. 학생들과의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학생들의 상담요청을 환영

하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달라진 점은, 제가(학생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함께 하실거야” 같은 말들 말이죠. 제가 지켜보면서 학생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잘될거야, 괜찮아’ 같은 그런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학생이 진짜로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용기 있게 접근을 시도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관계형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이 오픈 될 수 있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한동인들에게 바라는 점?

저는 지금은 싱글인데요(웃음) 기도하는 아줌마로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평생 살고 싶어요. 저는 청년들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사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들에게 바라는 건, 학생들이 좀 더 오픈마인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학생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제 안에 있는 7~8을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1~2도 못 가져가요. 처음엔 그것이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가 준비가 안돼서 나눠 줄 만한 것이 없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게 된 건, 결국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걸 느꼈어요. 주님께서 그 학생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 소

망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저를 그들을 위로하시려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 간사님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오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뢰하고 다가가주시면, 그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필요들과 열망을 보시고 그분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상담요청은 언제나 설레고 반갑다며 활짝 웃는 간사님의 모습에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민정 간사님과 그 외 여러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 커플이 아니어도 행복해!

남자친구보다 맛있는 한동대 팀 남학우들의 화이트데이 이벤트



매년 3월 14일, 한동대의 남학우들은 이리저리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속한 팀 여학우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벤트를 받은 여학우들은 말로 표현 못 할 큰 감동을 한답니다.

2013 이용교수님팀 ‘이 용감한 녀석들!’은 서로 만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학우들이 함께 모여 여학우들을 위해 사랑 하나하나를 포장하고 영상을 찍어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양초로 길을 내어 큰 하트를 만들고 여학우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학우들

에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이들은 지금, 세상 어떠한 남자친구보다도 더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이트데이를 처음으로 준비한 신입생 강명성 학우(GLS 13)는 “사실 화이트데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왜 이런 걸 준비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선 저도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받고 감동하는 여학우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전에 들었던 의문과 힘들었던 마음이 한 순간에 없어지고 제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 한동에 왜 이런 문화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로가 서로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감동스런 이벤트를 체험한 최혜연 학우(GLS 13)는 “저는 한동대에 와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학우들을 위해서 바쁘게도 열심히 준비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해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지만 한동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가 일상이고 저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화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앞으로도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라고 전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화이트데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상술이라고 생각했던 화이트데이가 한동에서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저 하나의 행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추억들을 함께하는 한동의 문화는, 점점 각박해지는 이 시대의 대학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따뜻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사... 고난과 시련? 고민만 하지 말고 시도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녀의 고시경험담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권유선 학우를 만나다



지난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에 한동대 학우가 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권유선 학우(국제어문 05)입니다. 하지만 비단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바라봤던 비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인내'라는 열매의 중요성 등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그녀 삶 곳곳에 녹아 있었기에 그녀가 더욱 특별한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행정고시 합격한 05학번 권유선입니다.

국제어문학부에 소속되어있고 국제지역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고시 5급 공채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는 저의 비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공부는 외무고시였습니다. 행정고시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는데 외무고

시를 준비하려고 고시촌에 들어가니 자연스레 행정고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행정고시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더 부합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지요.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국가의 국정운영을 한다는 점이 저의 비전에 가장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북한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 관련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망하는 바로만 된다면, 아마 제가 통일부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통일에 대해서도 항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극복했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 재정, 체력,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저 시간이 한해 한



해 지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 마음 속에 소망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가장 많이 붙들었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신뢰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0% 선택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나의 길이 이 길이야’라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소망을 좇아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자신의 비전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행정고시 부분에서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5번의 시험을 봤어요. 보통 두세 번 도전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소망과 비전

이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만들어 내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선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즉,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의 안위와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서 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마지막까지 권유선 학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치 없게 쓰시지 않아요, 단 한 순간도요”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터뷰 내내 보는 이에게도 따뜻한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과정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 행정고시 5급에 최종 합격한 권유선 학우의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예배는 계속된다!

한동의 새벽 파수꾼 '새벽에 벌떡'



한동의 새벽공기는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효암채플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보입니다.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예배는 계속된다’는 슬로건에선 한동인의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느낍니다.

이 가운데 새벽예배를 섬기며 한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의 새벽 예배 팀, ‘새벽에 벌떡’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새벽예배를 섬기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준비합니다. 현재 새벽에 벌떡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영 학우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새벽에 벌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새벽에 벌떡’은 한동대학교의 새벽예배를 섬기는 공동체로 95년도 이후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해왔습니다. 초창기 ‘새벽에 벌떡’은 벌떡증찬단과 섬김이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

한 구분 없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네요. 벌떡이들은 사회, 기도, 반주, 찬양, 엔지니어 등 벌떡이들 각자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나누며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관리나 청소 등을 분담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기도,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새벽예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예배 때는 음악도 크게 틀고 불도 끕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소리를 지르든 영영 올든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벌떡이들은 새벽공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예배를 섬기고 주님께 예배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벌떡이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땐 그냥 자고 싶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벌떡이들이 제시간에 못 나가게 되면 새벽예배 오시는 분들이 문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벌떡이들은 “새벽예배 오시는 분들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벌떡이는 ‘조금 있으면 내일 새벽예배에 또 가는 건가?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며 잠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알람도 잘 들리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벌떡이는 벌떡이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오늘 내 차례인데 못 나갔다’하는 이런 죄책감이 들며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를 택하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부담감이 아닌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벌떡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한스트때도 새벽예배를 했는데, 새내기들이 하루에 200명씩 왔습니다. 그 때 노란 옷 입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섬겼을 때, 예배가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벌떡의 바램은 ‘섬기는 자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자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학업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벌떡이들 가운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무대를 꾸미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새벽예배를 준비하며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욱 기대됩니다”

벌떡이들에겐 한동인들이 모두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바람이 이뤄지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Why not Change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the World?



글로벌 전공 봉사(GEM)를 통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사업 GEM을 개발한 한윤식 교수님



Global Engagement & Mobilization(이하 GEM)은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 물품을 기증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일회성 단순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의 전공과 교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소외된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전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이 한동대학교 한윤식 교수님이 추구하는 GEM의 목표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

GEM은 재능기부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해 소외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을 꾀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봉사사업입니다. 실제로, GEM을 통해 매해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 비하르, 차드, 탄자니아 등에 ▲흙 건축 ▲온수난방 ▲수질개선 ▲정수 필터 ▲마이크로 GIS 등의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GEM을 통해 아동심리치료, 청소년교육 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역자 훈련, 성형 숯, 식품가공 등 공동체기업이 형성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봉사사업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계획을 필요로 하기에 한윤식 교수님은 Global Engagement Project(이하 GEP)라는 수업을 개발하셨습니다. 한교수님은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업인 GEP를 통해 타문화의 이해와 국제개발, 총체적 지역사회개발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전공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최소 2, 3년 소요)를 기획하고 실행을 준비하게 됩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GEM사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이 어떤 지역의 문제를 가져오면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수님을 선임하고, 그 지도교수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교수님은 GEM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동시에,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제지역사회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가 구현된 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는 그 나라의 지리, 경제, 문화, 교육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현지민들이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빈곤 퇴치를 꾀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한교수님은 “차드나 말라위 같은 낙후된 지역의 빈민들에게는 전자기술 같은 첨단 기술보다는 그들이 이해해서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90%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기술의 목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적정

기술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다른 대학에서도 적정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또, 최근 국내에서는 공학과 국제개발 관련자들 사이에서 적정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GEM사업은 소외된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도 전문성과 세계관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육성

한운식 교수님은 청년 시절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에서 학, 석사를 취득하고 로봇틱스를 연구하시던 중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과 융합의 필요를 느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웨이크포리스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인연구를 하시던 한교수님은 1994년 김영길 총장으로부터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하기를 부탁받고 박혜경 교수님과 부부동반으로 한동대학교에 오셨습니다.

한운식 교수님은 오랫동안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전공지식과 인성, 세계관을 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으로 글로벌 공학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뒤이은 2008년과 2009년, '나눔과 기술'과 함께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와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설계 경진대회를 각각 시작하셨습니다. 한교수님은 "나후 지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 법, 상담 등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모든 전공이 참여할 수 있는 GEM사업으로 확대하게 됐었죠"라고 회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한교수님은 "GEM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열정과 전문성 덕분입니다. 이러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GEM 등을 통하여 한동대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 각자의 영역에서의 조직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을 다른 나라 대학과 청년층에게 파송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앙양하고 싶네요"라고 전하셨습니다.

순전한 어린양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3세계를 위해 예배하는 비즈니스 미션 학회 LAMB 이야기



“저희는 학기 중 예배, 기도 모임, 제자훈련 등을 매주 함께하고 있어요”

이는 그 어떤 신앙공동체도 아닌 비즈니스 미션을 수행하는 학회 LAMB(램)의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닌 학회에서 매주 예배, 기도 모임, 제자훈련을 한다니 살짝 의외이죠? 이처럼 LAMB이 특별한 이유는 마치 호박같이, 겉모습은 ‘학회’라는 딱딱함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 보면 ‘공동체’라는 말랑말랑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MB은 ‘Lord Asks for Mission&Business’의 약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즈니스 영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학회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 이들은 매 학기 방학마다 제 3세계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라는 영역을 중

심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영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LAMB이 방학마다 제 3세계에서 하는 일은 주로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비즈니스미션’, ‘교육사역’, ‘선교사님 사역’입니다.

비즈니스 미션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와 지역산업환경 등을 조사하고,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플랜을 짜주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LAMB은 2011년, 몽골의 바가노르 지역에 세탁사업을 런칭했습니다. 이를 런칭하기 위해 LAMB은 지난 10여 년 동안 몽골을 방문하고 비즈니스 미션을 실행해왔었다고 합니다. LAMB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을 영적으로 독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LAMB은 몽골 바가노르지역의 헤틀린 직업 학교에 가서 영어, 컴퓨터, 한국어, 문화 수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사역, 선교사님을 도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각종 노동을 돕는 선교사님 사역 등을 합니다. 현재 LAMB은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 이들은 ‘학기 중 준비-사전합숙-아웃리치-마무리합숙’으로 이루어진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는 예배와 기도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LAMBer(LAMB 학회원)들 사이에선 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학회원들 간의 의사소통 마찰과 현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수

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그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LAMB의 결속력과 하나님 의 이끄심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담당교수님이신 유기선 교수님은 늘 멤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LAMBer중 한 명인 문성민(07 경영경제)학우는 “저희는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좋고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끈끈함은 LAMB의 전통이죠”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는 애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네요.

LAMB의 목표는 ‘Businary Life’를 사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Business필드에 나가서 Missionary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Businary life입니다. 졸업생들과 함께 선교 회사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는, 어린양같이 순전한 LAMB. 그들의 꿈이 꼭 이뤄질 길 함께 기도해 봅니다.

설문조사에서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착한 애플리케이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 TICTAC



자신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란 사실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것의 가장 좋은 예인 'TICTAC'이란 설문조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굉장히 유용한데다가 사회에도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들고 학우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설문을 해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설문에서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신개념의 TICTAC! 이런 착한 앱을 만든 이들은 과연 누구까요? 바로 한동대에서 전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성현(전산전자 07), 이현정(전산전자 09), 정희영(전산전자 10) 학우입니다.

이 새로운 앱은 작년 가을학기 중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에서 처음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팀원들이 당시 2012년 봄 학기의 '캡스톤 2' 수업에서 'TICTAC 애플리케이션 프로

젝트'를 이어가 2012년 겨울방학, 드디어 TICTAC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TICTAC엔 어떤 편리한 기능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앱에 가입한 회원들만 설문응답을 할 수 있기에 설문 응답자 표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문응답자는 설문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란 이용자들이 설문에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들은 '히즈빈스'에서 사용되는 할인 쿠폰을 살 수 있는 cash와 기부를 할 수 있는 'puzzle'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puzzle'이란, 설문을 요청하는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의 10%를 설문 응답자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응답자들은 이러한 퍼즐을 모아 다시 TICTAC운영팀에게 환원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 모이게 되면, 교내기관인 '학생협력처'와 연계해 스마트폰을 가질 수 없는 특정사유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향후 계획에 대해 TICTAC 프로젝트팀원들은, "설문응답자들을 위해 Web Page를 제작하고,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선 불가능한 설문기능들을 추가시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설문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TICTAC 프로그램이 정해놓은 고정 기부 시스템을 점차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기부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 내려는 아름다운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TICTAC 프로젝트의 팀장인 이성현 학우는 "컴퓨터 공학이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하

지만 그 장벽에 부딪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한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여드릴 것입니다"라며 뜨거운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TICTAC과 같이 아날로그 방식의 무언가를 '생각전환'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TICTAC 프로젝트 팀원들의 눈빛은 이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한동인들의 행보가 다음엔 또 어떤 방식으로 빛을 발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스펙이 아닌 희망찬 스토리에서 나오는 경쟁력

‘직원의 꿈과 열정’을 성장시키는 핸드스튜디오 대표, 안준희 동문



수많은 청년이 꿈꾸는 ‘꿈의 기업’으로 잘 알려진 핸드스튜디오. 핸드스튜디오의 직원복지제도는 ‘혁’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인터넷에 소개돼 화제가 되었던 결혼지원금 지급과 같은 제도는 ‘회사의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요. 이처럼 이해되지 않던 핸드스튜디오의 놀라운 직원 복지제도는 한동대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안준희 동문(경영경제 00)을 만나보았습니다.

Q 먼저 ‘핸드스튜디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전의 제왕 TV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탑재하면서, VOD 서비스, 헬스 등의 각종 2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따라 ‘사용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데요. ‘핸드스튜디오’는 그것에 맞게 ‘TV’라는 장치를 선행 연구하고, 사용자가 공감할만한 콘텐츠

츠를 개발하여,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세계최초 ‘스마트TV 콘텐츠 개발 및 공급기업’입니다.

Q 핸드스튜디오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09년 KT를 통해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5년 후에는 모든 가전에 스마트 플랫폼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핸드스튜디오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대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도전될 만한 일을 ‘저질러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창업이라는 선택이 그리 무겁지 않은 않았습니다.

Q 핸드스튜디오가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직원만족도가 높은 회사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결혼지원금 지급(1000만 원), ‘

때때옷 입고 고향 가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배려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한동대에서 경영학 입문 수업을 들을 때,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업이란 가계나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다시금 가계나 사회에 환원하는 집단이다” 라는 것이죠. 수많은 핸드스튜디오의 복지제도들은 기업의 본질을 따르겠다는 이념을 트렌디한 문화 소재에 담아 실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업계에서 선한 기업(Good Company)을 모토로 훌륭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계시는 많은 분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직원복지’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원복지’는 사람이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Q 한동대 재학 당시, 경영을 전공하셨는데 전공 이외에 현재의 선배님을 있게 해준 대학에서의 추억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한동대에서의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들께 배웠던 가르침뿐만 아니라, 팀 활동, 신앙공동체, 기숙사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제가 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세계시장에서 핸드스튜디오의 경쟁력 중 하나가 ‘속도’입니다. 트렌디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획, 디자인, 개발’이라는 영역들이 얼마나 빨리 융합/창조의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런 점에서 핸드스튜디오는 직원의 절반이 한동대 출신으로서 그들의 대학 시절, 무전공입학 및 자율전공제도 덕분에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듣고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원 기숙사 생활 및 팀 활동 등을 통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Q 학교에 다닐 당시, 해보지 못해서 후회되시는 일이 있다면?

후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해봤다고 자신합니다. 연애도 해봤고, 학사경고도 받아보았습니다. 총학생회, 자치회활동들은 아직도 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방학만 되면, 기독교공동체를 통해 국외 오지로 봉사활동을 다녔고, 타 학부 동료들을 모아 전국공모전에 여러 차례 나가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배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학점, 스펙 등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동에 서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Q 한 인터뷰에서 “회사의 꿈은 없다. 회사 직원들의 꿈의 무대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몇 년 동안 함께했고 회사에서 큰 몫을 하는 직원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회사를 나가겠다고 한다면 흔쾌히 보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웃음) 이 회사의 원동력은 ‘세계 1위’도, ‘선한 기업’도 아닌 ‘개인의 꿈과 열정이 이 집단에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으로서 핸드스튜디오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겠지만, 더 큰 도전의 길을 떠나는 것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Q 선배님께서는 채용면접에서 항상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선배님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왜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도 사랑하는 한동의 교수님들을 통해 배웠네요. 저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제 삶의 태도가 늘 푸른 청춘처럼 열정적이기를, 인생의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해 있고 늘 후배들에게 도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동 후배들에게 격려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많은 졸업생이 한동을 그리워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온전함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자’ 하는 소중한 한동인들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이 선배들에게 그리고 선배님들이 저희에게 전해주었던, 사랑과 꿈의 화살이 후배들의 가슴에도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한동’이라는 이름 앞에 설렘이 남아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더욱 아껴주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전국의 수많은 청춘들에게 초대받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젊은 인재를 만날 수 있는 복도 얻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청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 사람의 경쟁력은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희망찬 스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저를 포함한 핸드스튜디오의 동문선배들도 후배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한동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컨설턴트 심규진 동문과의 만남

포스코 경영 연구소 컨설턴트 심규진 동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

“어라? 저분은 2013한스트 사회자분 아니야?”
2013한스트의 사회자가 아닌 포스코 경영 연구소 컨설턴트로 다시 만나는 심규진 동문! 한동에서 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그가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동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졸업생 특강으로도 한동에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진솔한 컨설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 연구소 컨설턴트 심규진입니다!

저는 04학번 졸업생 심규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제가 한동에서 받았던 꿈과 비전들을 이 친구들에게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즘,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꿈이 있기보다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꿈을 가진 청년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실성 있는 교수자의 전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교육하는 담당자로서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말을 잘하는 능력 역시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 이전에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좋아해야 강의 내용이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교수자가 진심으로 강의할 때 비로소 학습자들 또한 그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실성이 있는 교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밑바탕에 있어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사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인은 정직함과 성실함의 무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동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무한 경쟁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동에서 볼 수 없었던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죠.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해도 주위의 사람들은 보듬어주는 커넝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회는 소리 없는 전쟁이 확실히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동에서 저희가 늘 입버릇처럼 배우는 정직함이 있잖아요. 또한, 무감독 양심시험 제도를 통해서 겪었던 정직함과 한동생활을 통한 특유의 성실함, 오히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더니 사회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더라고요.



사실 사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단순 하듯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단순해요. 남 을 이기려고 머리를 쓰기보다는 한동에서 배웠던 그대로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과 맞서면 됩 니다. 그러면 어느덧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고, 전쟁터라고 여겼던 세상에서 타인을 적대하기보 단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저도 그랬고요(웃음). 아무쪼록 정직함과 성실함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한동 인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의 팀 제도를 통해 이미 습득돼있던 사회 조직생활

전 기숙사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공동체생활을 접 했습니다. 그리고 팀 제도를 통해 여러 사람과 만 나면서 함께 했던 많은 활동이 사회 조직생활을 꾸 려나가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 사람 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 사람을 새롭게 만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대해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거죠. 학창시절 당시, 이 러한 한동의 팀 문화를 통해 이미 사회에서의 조 직 생활을 나름의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순히 논 것이 아니라 팀 제도를 통해 대학생활에 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추억 들을 떠올리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팀 활동과 교수님 과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전공공부 등 어느 하나 놓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모두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동에서 5명의 동역자를 꼭 만 드십시오. 그래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함께 기도 하 고, 선한 가치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이지만 한동에서 배우는 정 직함과 성실함을 겸비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 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규진 동문은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 기도 하면서 박사과정까지 준비하여 박사 학위를 마치고 제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가서 교육으로 선 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라 며 앞으로의 또 다른 계획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심규진 동문에겐 유쾌함과 끝없는 열정이 가 득했습니다. 한동의 열정 전도사 심규진 동문의 앞 으로 행보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물 파는 총동문회장이 한동에 보낸 편지

95학번 졸업생 김승환 동문 이야기



“저는 흙냄새가 좋습니다. 바람도 좋고요. 저녁에 노을 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곳 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 땅이 꼭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는 곳을 가보는 게 꿈이죠. 그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 로 서로 친구가 되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꿈이예 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 가 장 큰 축복이죠”

안녕하세요. 95학번 졸업생 김승환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99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당시엔 첫 졸업 생을 첫 열매라고 부르며 학교 전반적으로 기대감 들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졸업 캠프도 하고 첫 동문회도 시작하게 됐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동문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엔 다른 분으로 바뀔 것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웃음)

저는 이때까지 졸업생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기초적인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한 번씩 서울에서 전체 총

동문회를 열고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 졸업생들이 한동을 다시 느낄 수 있고, 교수님들과 총장님을 다시 뵙는 등 자신의 못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간 졸업생들은 각자 다양한 종류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바꿀 듯한 기개를 지닌 채,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전 자의 경우와 비교해 노력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본 인이 살짝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총동문회 운영 초창기엔 특정 성공 한 친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제가 집중 돼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보다 는 세상적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 함께 모아지는 데 의견이 합치되고 있어요. 즉, 성공 지향적인 타 대 학 동문회와 같은 맥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졸 업생들의 현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계속발 전하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믿고, 모일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지요. 이제 곧 저희 안에 서의 이러한 의견들이 총동문회 운영에 적극 반영 될 예정입니다.



우물 사업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관련 팀에 합류해 훈련을 받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물 파는 팀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한 직후, 한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뭐 하고 지내니?”라고 물어보셔서 “저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그럼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만난 교수님께서는 제게 “넌 분명히 잘 살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한편으론 남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쓰는 삶을 살아보면 어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선 공평하셔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언제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시진 않으실 거야”라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죠. 그리고 “언젠가 분명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제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를 함께 준비하는 특권을 누리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교수님 말씀에 매우 감동하고 합격한 회사에 가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다 보면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또한, 사람들의 환희 순간을 직접 보게 됩니다. 평소 우물을 파게 되면 약 백여 명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옵니다. 게다가 만약 특정 날이 물이 나오기로 한 예정일이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옷을 차려입고 옵니다. (미소 지으며) 그리고 마침내 물이 펄펄 솟아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마사이 마을, 소말리아, 케냐 등을 왔다 갔다 하며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비록 우물을 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구나’라는 것이예요. ‘내가 희망을 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나, 참 감사하다’라고요.

한편 한동에도 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배운 것들도 많고요. 물론 한동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부족함이 한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에서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저자신이 항상 정직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늘 정직에 관한 기준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도 되고요

제가 한동에서 배웠던 또 다른 것 중엔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배운 것도 포함됩니다. 한동엔 너무나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합심했을 때 더욱더 건강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에겐 이 자리를 빌려 3가지 정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되는 과정은 훈련인 것 같아요.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과정 역시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일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소외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

찬가지고요. 아무리 그들이 험벗고 굶주렸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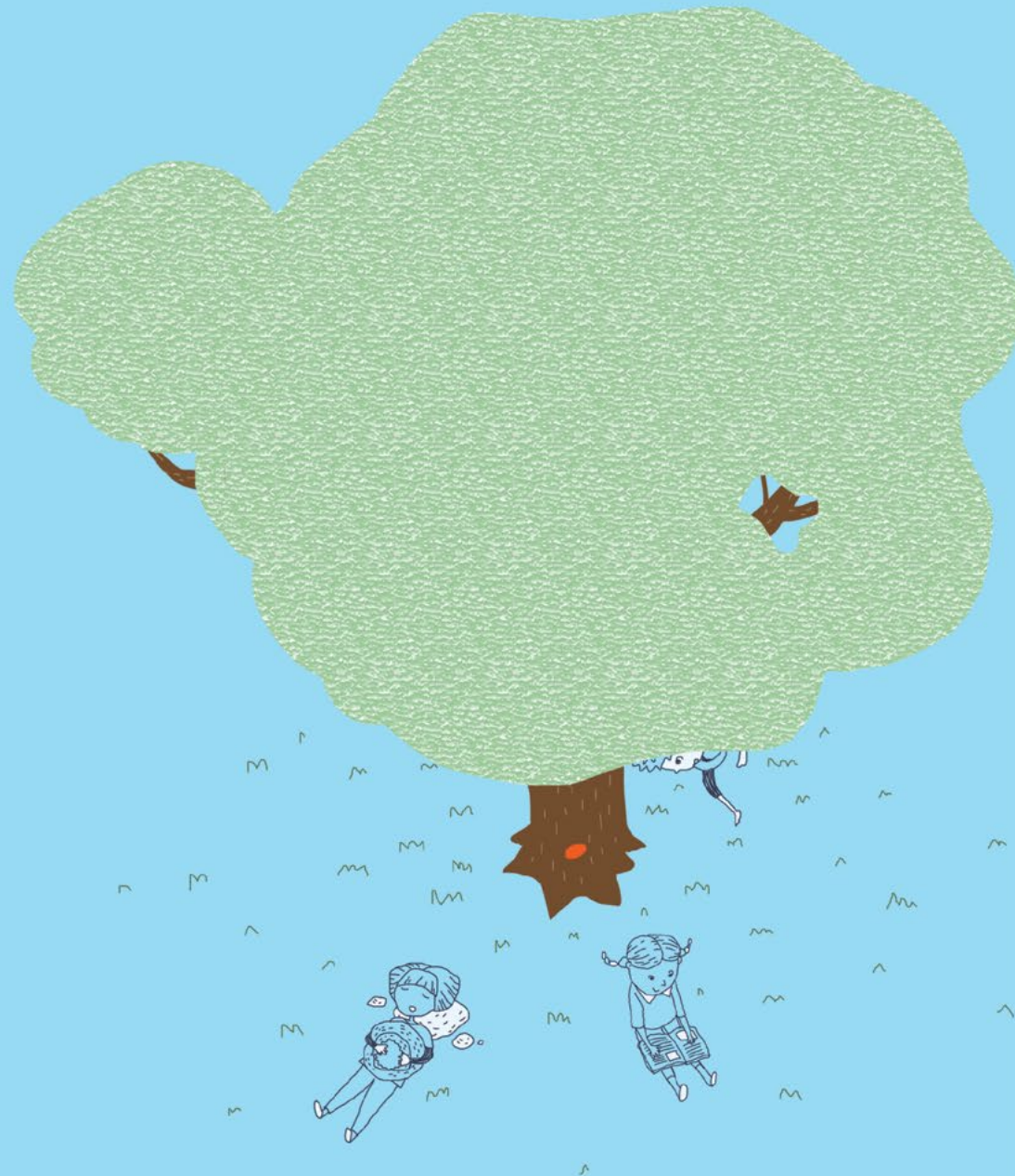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Why not change the world’죠. 20살 청년에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말인 것 아닐까요?(웃음)

저희가 30대나 40대가 되어서도 ‘Why not change the world’는 의미가 있죠. 특히 졸업하고 나면 바로 느낍니다. “아! 나 혼자 살기 힘들구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나도 살기 힘들어, 나부터 변화돼야 하는데……”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조차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 걸”이라는 고민들을 통해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점점 그 안에 갈등을 만들며 체득화되면서, 결국 그 본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우리가 화려한 성과를 내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실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학생들 졸업생들 모두 지금의 우리 모습과 이름과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한동은 뭐하고 있을까?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 투자학회’, 국제투자분석대회 한국대표로 선발

한동의 특기, 팀워크로 똘똘 뭉친 청지기투자학회의 활약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저희끼리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아닌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2013 국제투자분석대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예선의 한국대표로 파견되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는 청지기 투자학회 회원들의 고백입니다.

수상자인 황주성(08), 구웅(06), 김영규(09), 김지은(09), 이소라(11) 학우가 속한 ‘청지기 투자학회’. ‘투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비전으로 설립된 청지기투자학회는, 청지기 윤리와 실력을 겸비한 투자, 금융, 재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FGBS, 기업분석, 경제/산업분석, 사모펀드운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국제투자분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나 성과주의가 아닌,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마인드와 팀워크 덕에, 준비과정에서도 크게 어려웠던 점이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청지기투자학회 회원들. 그들에겐 일종의 가족 같은 끈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 당일, 발표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떨리지도 않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준비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감사했어요”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투자분석대회는 ‘국제재무분석사협회’에서 미래의 애널리스트 지망생들에게 주식분석 실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적인 투자분석 경연



대회로, 참가한 학생들은 재무분석, 가치평가, 투자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등의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투자분석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회인 만큼 이번 국내대회에는 한동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서강대 등 국내 우수 대학의 총 10개 팀이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지기 투자학회가 국제투자분석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2011년에 5등, 2012년엔 2등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대회에선 한국대표로 선발된 것이지요. 독심으로 차근차근 여기까지 올라온 이들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대표로서 ‘국제 파이널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들려올 그들의 활약소식이 벌써 기대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배우는 '창조과학'

2013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
한동대에서 열려

지난 5월 24일부터 2일간 한동대에서 개최됐던 '2013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등록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본 행사가 있기 전날, 한동대에서의 전야제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효암채플에서 시작된 전야제 예배 이후 곧바로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강연은 '과학과 신앙', '창조과학과 일본선교' 등을 주제로 이뤄졌으며 강연자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와 일본창조과학회의 호리코시 목사가 초빙됐습니다.

본 행사는 다음날 오전 9시 무렵 효암채플 예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대회장인 사식순에서 김영길 총장님은 "저는 오늘 창조과학회 학술대회를 하나님의 대학을 추구하는 한동대학교에서 열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먼 길에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라 말하며 내외빈들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전 10시가 되자, '한국창조과학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첫 번째 기조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사인 김영길 총장님은 자신이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창조과학의 정당성, 나아가 창조과학회의 앞으로의 사명 등을 이야기하며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역설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부터 시작된 세션 구분 강의는 ▲명강사 명강의 ▲창조과학과 생명윤리 ▲교과서와 진화론 ▲창조과학과 신학 ▲차세대 창조과학자 발표 등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교내 다양한 강의실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한 세션 아래엔 다양한 교수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준비한 강의가 5개씩 열려,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학술대회는 자연스럽게 폐회했습니다.

특히 각 강의실은 교수진, 일반인, 학생들 등으로 구성되어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으러 온 김준호(GLS 13) 학우는 "평소 창조과학



에 대해 어렵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을 접하게 돼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창조과학을 더욱 자신 있게 전파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자신 있고 기쁜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세션'엔 많은 어린이가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각 체험교실은 '노아의 대홍수', '우주가 저절로 생겼을까?' 같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이 가운데 길소희 간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성심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들도 자주 엿볼 수 있어서, 보고 있던 기자 역시 자신도 모르게 아뵤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학술대회에 어린 아들을 데려온 이선희(36세) 학부모님은 "이번 창조과학 학술대회는 나이에 구분 없이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술대회란 점에서, 배움과 진리의 추구엔 나이가 상관없이 잘 나타난 모범적인 학술대회인 것 같습니다"고 전



하며 세션 구성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한편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1981년 학회 창설 이래 연 1회씩 열려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한동대는 창조과학에 대한 수업을 많이 열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 한동대가 창조과학도를 더욱 많이 배출해서 창조과학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받고, 그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열려



지난 5월 31일(금)부터 한동대에서 이틀 동안 진행 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이하 상사학부)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엔 현직 교수님들 이외에도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개설 초기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퇴직 교수님들도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교수,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들로 이뤄진 약 4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사를 맡으신 김영길 총장님은 지난 10년간 상사학부 교수들과 학생들의 활동을 돌아보시며 “상사학부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상사학부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상사학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을 잘 키워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축사 이후엔 상사학부가 지금의 학부로 자리 잡기 까지 공헌한 김동수 교수님, 이기복 교수님, 김엘하나 교수님, 황혜리 교수님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은 다시 만난 한동대와 한동학생들에게 깊은 반가움을 표하시며 공로상 수상에 매우 감사한다는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행사의 기조강연 연사로는 유영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님이 초빙되었습니다. 유교수님은 ‘미래사회의 모습’을 주제로 앞으로 한동대 상사학부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역설하셨습니다.

격려사를 맡은 최도성 국제화부총장님은 한동인은 국제화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주제발표에선 신성자 경북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에 대하여 강연하시기도 했습니다.



북한/통일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사 졸업생들과 학부장인 전명희 교수님이 함께 준비한 ‘통일시대를 여는 상사인’ 패널리스트의 역시 이번 행사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엔 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세션들이 짜임새 있게 준비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졸업생 mentoring time’ 세션에선 졸업생과 재학생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마련된 점이 특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GO fair’세션도 마련돼 국내외 다양한 NGO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재학생들간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간 행사에 참여했던 김상하(상담심리 08) 학우는 “멘토링 세션에서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서 일하는 선배를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즐거움뿐 아

니라 살아있는 자연을 목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임을 더 깊이 배워간다는 선배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는 꼭 청소년 캠프에서 기관실습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모로 방학계획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선물해준 뜻깊은 10주년 행사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부장인 전명희 교수님은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졸업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며 감격에 겨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사학부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향후 10년을 기획하는 시간으로서 교수, 졸업생, 재학생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상사학부의 슬로건인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 온 지구 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곳으로 뻗어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המלכה
המלכה
המלכה



끝까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온 김영애 사모님



한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보았을 <갈대상자>. 누구든 <갈대상자>를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가 없을 텐데요. 그 놀라운 한동이야기의 저자는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김영애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께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웠고, 그 놀라운 일들의 목격자로서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생생히 전하고 싶어서 '갈대상자'를 쓰신 것이죠.

“<갈대상자>의 후속작으로 <구름 기둥>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자라는 말이 하나님께 정말 송구스러워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목격자로서 증언한 것뿐인데……”

김영애 사모님은 저자라는 단어에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한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갈대상자>를 한창 집필 중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컴퓨터로 작성 중이던 문서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컴퓨터를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복구를 못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구시켜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날려버렸다. 너는 지금 너의 감정적인 묵상으로 내가 아닌 너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드려 회개했고, 그 이후로 <갈대상자>를 집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썼어요”

<갈대상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영애 사모님은 총장님과 함께 수많은 곳에서 간증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귀찮거나 하기 싫으셨던 적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나면 힘이 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총장님 뒤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조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에요.”

과거 이화여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실 당시, 김영애 사모님은 강단에 선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마지막 강의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지금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김영애 사모님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 덕분이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김영애 사모님께서서는 특히 한동의 후원자분들께 감사한다고 전하셨습니다.

“한동의 후원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인

재들을 키워내야 하겠다’는 특별한 영적 지혜를 주신 분들이죠. 후원자분들이 가정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소식을 들 때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사모님께서서는 한동을 후원하는 분들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 이름이 이 순간에도 하늘 나라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고 확신하시며 매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모님께서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동인들을 간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hy am I here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첫 열매

한동대 동문이 아닌 자매들의 첫 열매 후원 이야기

첫 열매 후원을 아시나요? 첫 열매 후원이란 한동 졸업생들이 취업하여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동에 전하는 동문들의 후원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봄, 아주 특별한 첫 열매 후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30일에 첫 열매 후원을 하신 분은 한동대 동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어떻게 한동대에 후원하시게 되셨나요? 게다가 첫 열매라면 더욱 특별한 후원인데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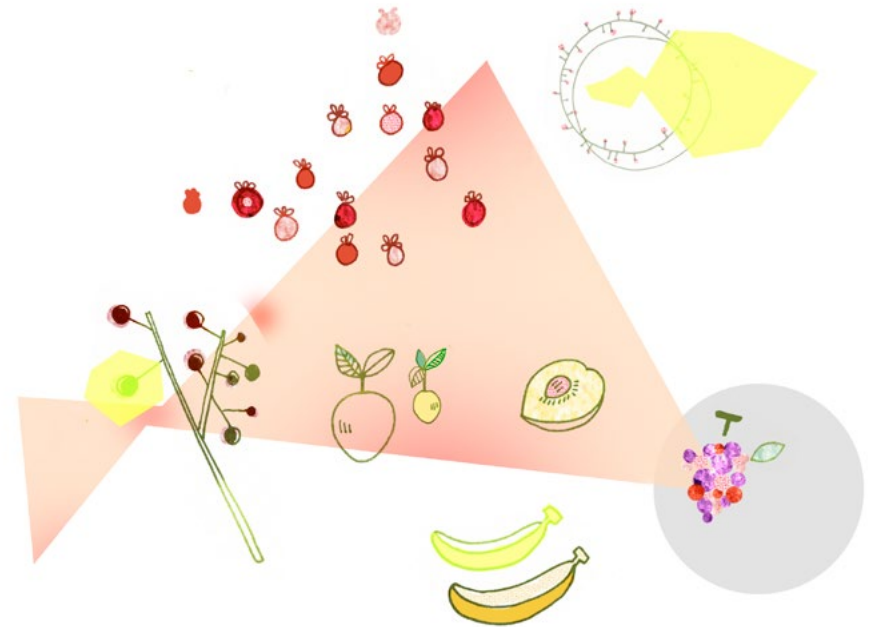
“사실 제 동생이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학교여서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한동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취업 후 첫 월급을 받게 되었고 뜻깊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한동대학교 동문들의 첫 열매 후원이 생각났습니다.”

Q. 본인이 졸업한 학교도 있는데, 한동대에 후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동대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도 물론 좋은 학교지만, 크리스천 학교가 아니었기에, 지금껏 제가 지켜보았던 한동대라면 후원금이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너무나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 갑자기 번개같이 떠오르는 또 한 분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번처럼 첫 열매를 후원해 주셨던, 또 다른 비 동문 후원자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오른 의문을 해소코자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Q. 혹시…… (앞서 통화한) 000씨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첫 열매 후원을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막내동생이 한동대에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한동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첫 열매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동대가 크리스천 학교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000씨는 제 동생입니다. 동생도 한동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공감이 되었는지 이번에 첫 열매 후원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괜한 기분 탓은 아니었나 봅니다. 동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두 후원자의 이름이 비슷했고 확인해보니 주소도 같았습니다. 세 자매 중 큰 언니는 작년 6월에, 둘째 언니는 올해 3월에, 두 분 모두 한동의 동문들이 아니셨지만 첫 월급을 모두 고스란히 한동의 동문들처럼 첫 열매로 한동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신기한

마음을 추스르며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Q. 이제 한동의 후원자로서 한동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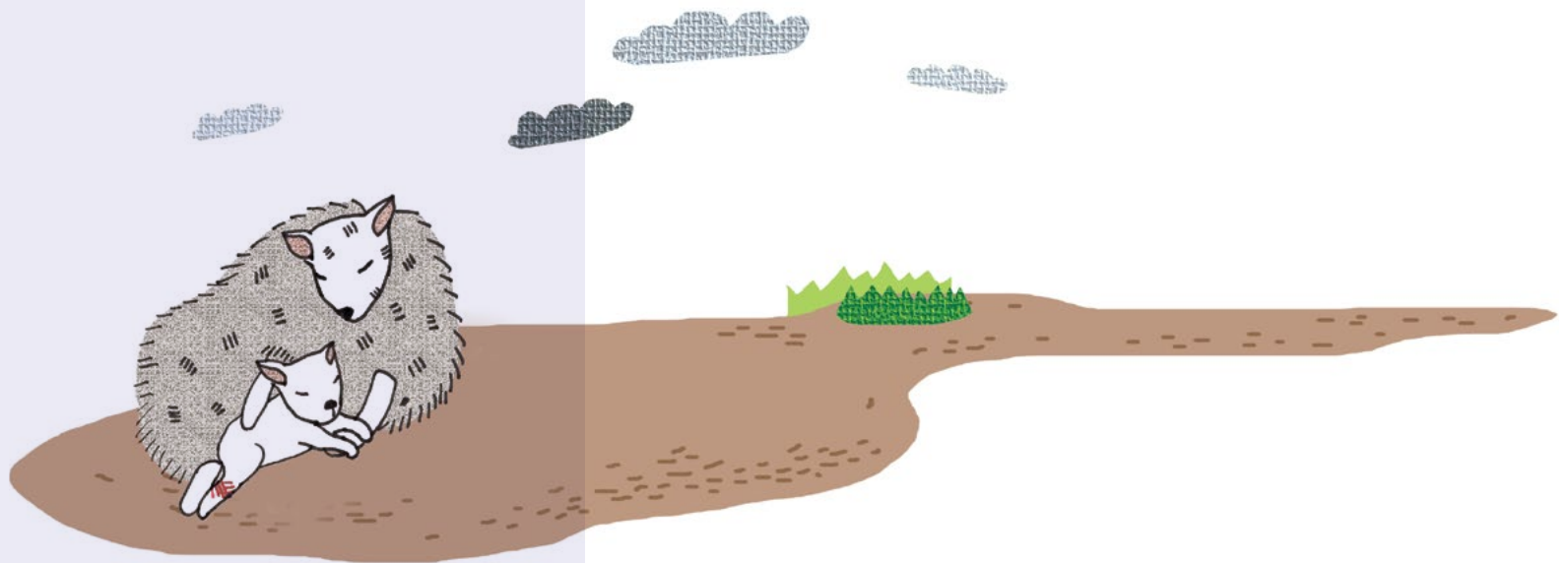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명문대학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지금까지 처음 그 마음을 지켜가기 힘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처음의 한동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인재들을 배출해내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자매간의 사랑,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한동을 향한 한 가족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동의 첫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5일의 사랑

한동 나눔 간증 공모전 대상

**진(GLS 13)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65일 밖에 되지 않았습
니다. 성경책을 처음 읽는 것은 물론이고 채플 시
간에 부르는 찬송의 가사에서 나오는 단어도 의미
를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따
뜻한 손길과 지혜로우심을 깨닫기에 65일은 충분
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집은 큰소리가
멎을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날의 기억 속에 부모
님은 언제나 돈 문제로 싸우셨고 저는 어린 동생
들을 안고 방 안에 들어가 숨죽이고 우는 일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은 각자의 길로 갈라셨습니다. 새어
머니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생들과 저는 우는
날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남작 조카
가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별적인 대우가 저
와 동생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 아
이가 잘못을 해도 제 동생이 혼나기 일쑤였고, 우
리 편을 들어주는 어른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외
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로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엄마 없는 새끼”라는 말
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런 처지에서 살게 만든 장
본인의 조카가 감히 제 동생에게 내뱉은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끝까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아이의 태도로 제 동생은 머리채
가 잡혀서 그 집의 거실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일
로 새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반항도 하지 못
하고 머리, 뺨을 맞기 일쑤였고 종아리는 항상 피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
가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습 시간은 칸막이 사이에 머리를 숨기
고서 동생들을 생각하며, 떨어져 혼자 지내는 엄
마를 생각하며, 불안한 제 미래를 생각하며 소리
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습을 마치고 마중을 나온 엄마와 밤길을 걷는 친구
들이 부러웠고 맞아서 피멍이 든 손으로 저를 붙잡
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동생을 보고 있노
라면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와 제 동생들에게 이
런 고통을 주어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무작정 하
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19년 동안 비관적
인 시선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던 제가 하나님을 만
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 2월,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
다. 한스트가 시작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입학을 했다는 것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
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식사 기도
에 익숙해져 가고 찬송을 콧소리로 흥얼거리기도 했
습니다. 한스트 기간 동안 매일 새벽기도에 나갔
고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찾아보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
지만 찬송을 부를 때 두 손을 드는 친구들이 대단
해 보였고 마음속의 한 분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를 접할 길
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신이 없을 거라 단정하고
있었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입학 전에 했던 걱
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신선하면서도 재미있는 시
간을 보냈습니다.

한스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능
숙한 기도를 따라 하기엔 아직 너무 어설펠기 때문
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말로 기도
를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 이야길 잘 들어주는 엄마와도 같은 분으로 다가
오셨습니다. 자식 셋만을 바라보다가 어느 한 순간
잃어 당신께서 더 허전함이 클 텐데도 저에게 같이
있어주시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잘 자라주어 고맙다
는 말을 해주며 밤낮으로 걱정해주는 엄마가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몸에 못
이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바다보다 광활하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아파도 병
원에 가지 않고 돈을 아끼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
나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
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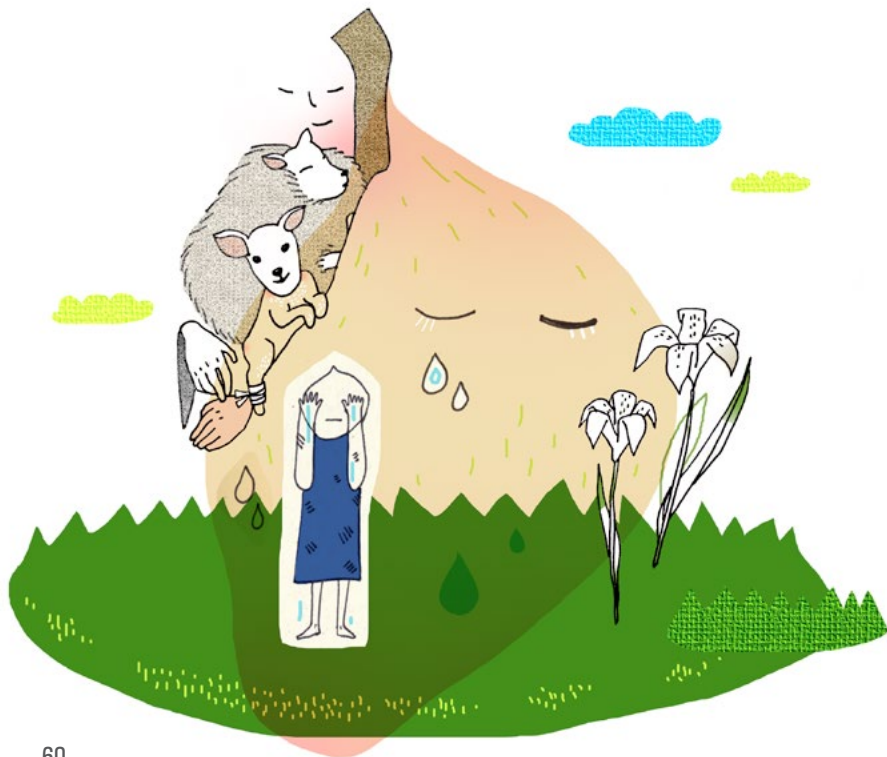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란 것을 깨
달자 그동안 고통이었던 것들이 감사하게 다가왔

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은 저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부유하지 못한 가정은 돈의 소중함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맞아야 했던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생과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첫째로써 제가 맡은 역할을 진중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런 가정의 상황을 쉽게 터놓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는 없었지만 손에 꼽히는 진심으로 기대고 싶은 친구를 찾음으로써 신중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눈물로 얼룩졌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가벼워

졌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깊은 가르침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토대로 아동심리치료사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사회에 나가서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까지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다가가는 한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동대에 배달된 오색호두과자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 43호 갈대상자 소식지에 실렸던 '한동대에 배달된 오색호두과자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호두과자사업이 잘되지 않아 더 이상의 후원이 힘들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카드, 그리고 그 카드와 함께 오색호두과자 한 박스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배달된 내용이었죠. 당시 교직원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데,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다시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죄송하다는 후원자님의 글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후원자님의 귀중한 마음에 교직원 선생님들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배송지 경로를 찾아 조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하셨는지 그 주소와 연락처를 통해서도 후원자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배달원의 목소리에 문으로 가 택배를 받아든 한 교직원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또다시 오색호두과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죠!

택배를 풀어보니, 그곳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된 호두과자들과 카드 한 장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카드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갈대상자 소식지에 자신의 호두과자 이야기가 실려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소식지에 실린 호두과자 이야기를 보고 두 분이나 전화가와, 격려해 주시고 호두과자를 주문해 주셨다는 따뜻한 사연도 실려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손님들의 격려와 주문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는 후원자님의 이야기에 함께 모여 카드를 읽고 있던 교직원 선생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카드의 마지막은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적 군사로 잘 양육되길 바라고 김영길 총장님을 존경

한다는 말과 함께, 형편이 좋아질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후원을 계속해주시겠다는 글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그리 나아진 것도 아닌데 이토록 기도와 물질적 헌신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동이 후원자님의

바람에 부합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교직원,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한동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이 담긴 호두과자를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계신 사업 역시 더욱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 1. 1 ~ 2013. 6. 30 신규 후원자 (신규 후원자 332명, 익명 후원자 1명)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가은찬	김동준	김옥분	남미화	박준혁	신미양	유준현	이선민	이철수	전진후	차승빈	허시운
강경숙	김들음	김옥희	남민우	박준연	신영식	유태준	이선주	이판기	전체주	채기승	허정실
강기동	김락선	김완진	남인아	박찬수	신은혜	유현	이성범	이해나	전태	채춘복	홍승진
강만호	김로이	김은비	남창효	박래환	신재민	유호성	이성수	이해준	정낙순	최기쁨	홍유미
강선장	김명덕	김은영	노혜선	박형선	신홍철	육선영	이성창	이현진	정다솔	최동환	홍유승
강숙자	김명선	김은정	도영승	박혜숙	심재향	윤로	이슬기	이희영	정민교	최두영	황경숙
강인제	김문정	김은호	문성린	반정진	심재현	윤서	이승재	임성욱	정영숙	최명운	황경옥
강주현	김미영	김의규	문순준	반효동	심재후	윤재혁	이승중	임승진	정윤미	최예슬	황명수
계기원	김미영	김의수	문종림	방현아	안정환	윤준영	이신혁	임영태	정지훈	최은숙	황범하
고복남	김민정	김인숙	문화준	배우리나	안태현	윤진현	이영근	임정욱	정진교	최은숙	황세윤
고현림	김보람	김인숙	민현월	배태근	안현우	윤철성	이영준	임창덕	정창일	최인수	황요한
고현열	김선미	김일구	박기진	백은희	양광석	윤하	이은수	임축복	조규봉	최재용	황주언
구일환	김성자	김정수	박경애	백하은	양세용	윤혜경	이은숙	장계자	조명술	최지희	황진수
권영배	김성진	김정숙	박경철	서문섭	양예숙	이강국	이은주	장병선	조무호	최춘자	황진현
권준혁	김성찬	김정윤	박농규	서바름	엄정근	이광인	이은호	장성은	조민아	최태진	황진호
김기원	김송영	김주은	박대범	석영찬	여현주	이광호	이인준	장원희	조복희	최혜민	황태우
김경수	김수정	김지영	박민주	선우준희	오시인	이기섭	이인학	장찬영	조삼순	하선례	황호찬
김경숙	김순자	김진경	박세롬	성세아	우경호	이노아	이창호	장태화	조선아	하재화	
김경환	김영미	김진수	박성진	성세영	우정화	이달호	이재선	장하람	조정언	하정은	
김경환	김영서	김태완	박시운	성세인	우혜경	이도은	이재성	전명욱	조철훈	하태진	
김광민	김영진	김하량	박예진	성준영	원광일	이돈석	이정애	전성진	조하은	한보경	
김규홍	김영환	김혜나	박우주	손하선	원용철	이동규	이정인	전승재	조혜원	한영미	
김기수	김영희	김현주	박은영	손희정	유경화	이미희	이종우	전승현	지용호	한정진	
김남	김영희	김혜진	박재평	송영선	유경희	이봉주	이주영	전우은	진사라	한지원	
김남균	김예일	김화자	박재형	송영준	유동식	이상길	이찬희	전정은	진승현	한창완	
김대니	김예찬	나동주	박종만	송현정	유인환	이석한	이창호	전주영	차경자	한하은	
진영재(조미영)			스톤엔지니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Deborah Van Duin		
서당골 18기			리디아텍스					명창재단	Henry Thomas Padrick		
최미경교수님 수업 프로젝트팀			기쁨의치과의원					밀알복지재단	Matthew Ray Dubois		
(주)유플시스템즈			세무사항봉길사무소					지구촌복지재단	Paul Daebeler		
(주)스마트로			노원창일교회					지구촌사회복지재단	Regan Rene Van Steenis		
한국인재평가개발원(주)			포항성화본부					연재장학재단	Tep Sokunvannary		
(주)더터콘			최경주복지회					안양샘병원	Gursch, Daniel Jeung-Hun		

후원안내

갈대상자

하나님께서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역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고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보아스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낮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룻.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518-810133-24005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한동대학교를 위해 곳곳에서 보내 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날마다 따뜻한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일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특별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한동을 떠나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고 설렘으로 받은 첫 월급.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한동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는 일반발전기금과 지정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일반발전기금은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하는 기금이며,

지정발전기금은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기금을 뜻합니다.

기부자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기타지정기부)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후원가입 정보변경 · 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한동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소득의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 054-260-1063~7

팩스 : 054-260-1069

E-mail : sarang@handong.edu

<http://sarang.handong.edu>

미국 LA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rnerstone Church 내 위치)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후원자님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감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더욱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2013 SUMMER HANDONG ENGLISH CAMP

Find Green Solutions

프로그램

3주 캠프

대상
초등학교3학년~중학교 3학년
일시
2013년 7월28일~8월16일

영어토론캠프

대상
중학교1~고등학교 3학년
일시
2013년 7월28일~8월7일

등록문의

전화 054-260-1991~3
홈페이지 camp.handong.edu

캠프 장소

한동대학교 캠퍼스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입니다.
푸르른 하늘에서 맑게 빛나는 태양처럼 힘차고 희망찬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제 13회 한동영어캠프는
"Find Green Solutions"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캠프를 통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발전하는 동시에
좋은 친구들과 인생의 면모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뜨거운 여름에 찾아온 한동의 HOT 선물

한동 여름 프리미엄 티셔츠

A type



B type



C type



한동 여름티셔츠가 프리미엄 티셔츠인 7가지 이유!

1. Handong Spirit을 담은 로고와 문구
2. 일반나염 NO! 3D스타일 나염으로 프리미엄 디자인
3. 프리미엄 티셔츠라면 필수! 목늘어남, 어깨틀어짐 방지처리
4. 면(60%)과 폴리에스테르(40%)를 섞어 착용감, 가벼움, 통풍성, 신축성, 건조성 모두 모두 업그레이드!
5. 여름이라 더욱 필요한 날씬하게 보여주는 옆라인을 살짝 앞으로 내리는 봉제기술 적용!
6. 소재, 염색, 봉제 모두 Made in Korea 라 믿을 수 있는 품질
7. 수익금의 절반은 한동대 후원금으로 기부까지!

티셔츠도 예뻐하게 입고,
후원에도 동참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디자인 A type/ B type/C type

색상 화이트 / 네이비

사이즈 90 95 100 105 110 (남녀공용)

가격 오프라인12,800원 / 온라인15,000원 (택배비 포함)

주문 신청

온라인 구매 : <http://sarang.handong.edu>

오프라인 구매 : 한동대학교 교내 복지회(서점)

주문,배송 문의 한동대학교 복지회 054-260-1259



sarang.handong.edu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